

성남전자공업(주)

전지팩 전문 생산업체

성남전자공업회사는 1973년 8월 28일 설립하여 지난 27년간 일본의 '日立 maxell사'와 합작하여 Audio Cassette Tape를 생산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 이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질시스템이나 품질에 대한 수준은 세계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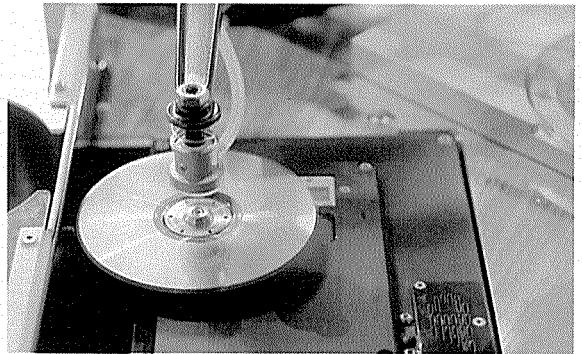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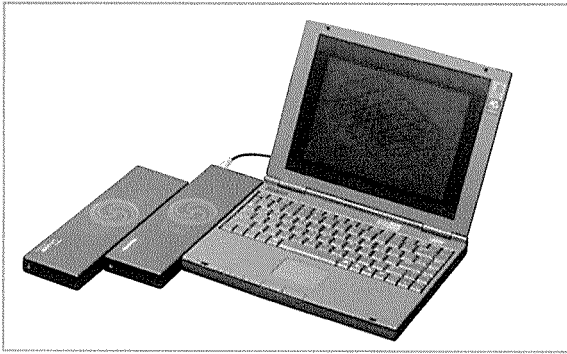
과거 27년간 미국, EU 등 해외시장서 세계 최고 품질 인정 받아

성남전자공업은 과거 27년간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서 'maxell' 브랜드로 세계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 인정을 받아 왔으며, 1998년 5월 전지팩사업부를 발족하여 제품 개발에 치중한 결과 소비자들이 와이어리스 상품을 사용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배터리의 잔량을 분단위로 LCD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체가 소비하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여 개발한 회로 내의 IC Chip에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거치면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능이 'Think Battery System'이다. 이 시스템을 응용한 첫 제품이 노트북 확장 전원 공급 장치인 Think-NOBA8 & NOBA12로 이 제품은 '노트북이 외부 전원으로 인식하여 내장배터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Think Battery는 노트북 내장배터리만 사용할 때 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가동시간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신문기자나 영업사원 등 외부에서 활동하는 전문 직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 노트북의 사용시간을 배가 하는데 성공한 확장 배터리로 1회 충전으로 약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전원이 없는 외부에서도 Think Battery를 사용하면 하루를 거뜬히 보낼 수 있어 노트북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다.

성남전자가 Think Battery System을 개발하게 된 목적은 이렇다. 일상 생활 속에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동



- 대표 : 변동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46-8
- TEL : 0342) 746-2601
- FAX : 0342) 735-9865
- http://www.kinori.com
- 주요생산품목 : 전지팩, 콤팩트 디스크, 카세트테이프



형 전자제품인 이른바 와이어레스(Wireless) 상품들이 많은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무전기 등 이러한 상품들은 제품의 특성상 전원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리튬이온 2차전지를 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wireless상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중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또는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등의 불편사항 등이 있다. 가장 곤란할 때가 중요한 상황에서 배터리를 모두 방전되어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출시된 것이다.

한편, 성남전자는 1998년 8월 1일 금강기업의 CDM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CDM 생산 설비 가동으로 각종 CD의 월 생산규모가 120만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도로 숙련된 기술진과 연구인력을 갖추고 정확한 설비유지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양질의 제품만을 생산하여 어떠한 주문생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북한 당국과 쌓아놓은 신뢰 바탕으로 대북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성남전자는 또 대북사업도 활발하다. 1998년 8월 북한의 민경련 산하 삼천리를 총회사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임가공 생산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뒤 그 해 9월 평양 방문, 10월에 1차로 조립, 포장 라인을 선적하여 12월에 기술진이 입국해 북한의 기술진과 생산 노동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남북 경협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대북 사업이 진행되었다. 작년 4월에는 10대의 자동

회된 성형설비가 다시 북한으로 이전되어 생산이 진행 중에 있어 지금은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어 오는 6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경협에서 이 회사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북한 당국과 쌓아 놓은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년에는 절전형 콤팩트 전구에 대한 북한 내 독점사업을 권유받아 금년 10월 1일 생산을 목표로 설비와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사의 변동호 사장은 「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기술 우위 제품이 당당히 해외시장에서도 정당한 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후속 제품의 출시로 BUYER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확고한 IMAGE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